

위태로움을 기회로 바꾸라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도행전 8:4-6

지금 우리는 큰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그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사람, 심지어 위기를 딛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 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함께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 집니다.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순교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지키셔야 했을 스데반이 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허망하게 죽다니요? 교인들은 충격 속에 장례를 치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인들의 슬픔은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흠어지니라.” (사도행전 8:1)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체포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폐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박해 앞에서,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집에 숨었고, 어떤 교인들은 주변 지역에 대피합니다. 여러분! 이때 교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스데반의 죽음, 교인들의 체포, 숨거나 도망쳐야 했던 상황!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황하는 게 정상입니다.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그 흠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사도행전 8:4) 그들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기뻐하며 춤춘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들수록 더욱 신앙에 충실합니다. 힘들수록 더욱 기도했습니다. 힘들수록 더 모여서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힘들수록 서로 흠어져서 복음의 말씀으로 전도했습니다. 힘들다고 한탄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만 보며 신앙에 충실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더러운 커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8:7-8) 커신들이 나갔습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괴롭던 사람들이 예수 복음으로 인해서, 희망을 얻었습니다. 곳곳에서 새로운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닥친 위기가 오히려 더 많은 곳에 전도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힘들수록 신앙에 충실한 것입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하고, 힘들수록 더 예배하고, 힘들때 더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 앞에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이 상황이 낯설고 어찌해야 할지 당황하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낯설어하거나,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위기 앞에서 더욱 신앙에 충실하면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붙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도, 예수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위기가 그저 두려운 때로 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계기가 되어서, 위기회로 바꾸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의 위기를 더 좋은 기회로 만드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